

한중 FTA관련 역수입 설문조사 결과 현지 실사

- 이문형 선임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센터)

□ 출장 개요

1. 출장자 : 이문형 선임연구위원
2. 출장기간 : 2012년 12월 23일 ~ 12월 26일(3박4일)
3. 출장지 : 중국 심천, 동관, 홍콩
4. 출장목적:
 - 한중 FTA 관련 역수입 설문조사 결과 현지 실사
 - 홍콩경제 동향 및 한중 FTA 홍콩 활용 방안

5. 출장일정 및 면담기관, 면담자

월일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	접촉인물 (직책포함)
12월23일 (일)	인천공항	심천공항	08:20-11:25(KE827)		
	심천		-심천 해경오스틴 호텔 - 심천신화서점	- 자료 구입	
24일(월)	심천	홍콩 (기차 이동)	-KOTRA 홍콩무역 관	-홍콩 경제현황 및 중국홍콩간 CEFA 동향 파악	-손수득 관장 외
	심천		-심천한인상회 (09:30-11:00)	- 심천한인상회 면담	- 심천한인상회 최상문 사무국장 외
	심천	동관	-동관한인상회 (15:00-17:00)	- 동관한인상회 면담	- 동관한인상회 김기선 사무국장 외
25일(화)	동관	심천	-동관시 요보진정 부 (18:00-20:00)	- 심천 및 동관한인상회 면담 -동관시 경제동향 파악 및 요보진정부 진장 면담	-요보진정부 유유창 진장 - 동관시정부 외사국 조동우
26일(수)	심천공항	인천공항	귀국(12:45-17:00 ke828)		

6. 주요 복명 내용

가. 홍콩

□ 홍콩 경제 동향 및 특징

○ 홍콩은 중국으로의 관문 “중국진출의 교두보”

- 1979년 이래 중국 주장삼각주 지역으로 유입된 직접투자 금액 2/3가 홍콩자본으로 주장삼각주에 대한 물류량으로 인해 홍콩 컨테이너항 및 공항의 물류처리량이 각각 세계 3위, 1위를 기록

○ 홍콩-광둥성 간 경제통합 계획 가시화로 접근성 제고, 통관절차 간소화, 물류비용 감소 등 관문 기능 강화 전망

- 홍콩-심천 통합도시 건설 추진 논의 본격화, 홍콩-주해-마카오 간 연결대교 건설계획 구체화 등
- CEPA 혜택적용 품목 확대(모든 홍콩 산 제품 1,732 품목, 서비스업 48개 업종으로 확대)
- 2020년까지 인구 5,689만명, GDP 1,147십억불 성장 전망
- 홍콩-주하이-마카오 항주오대교(35.6km), 심천-홍콩 고속철(26km) 등 건설
- 동일 광둥문화권으로 시장진입 용이(홍콩내 주요 화상기업들이 대부분 광둥성 출신, 유통망 보유, 동일 언어/문화적 배경으로 유사 소비형태 지닌 시장권 형성)

○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거점

- 2011년 기준 총 외국기업 구 6,948개사 소재(지역본부 : 1,304개사, 지역거점: 2,412개사)
-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(40 여개국 400개 은행 소재, 세계 100대 은행 69개 활동중, 증권사 321개사 진출)

○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물류 시스템

- 무인화된 컨테이너 시스템 보유
- 안전하고 정확한 운송으로 항상 예측 가능한 운송 환경

- 그러나, 홍콩의 해상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(중국 내 상해와 심천 등 경쟁항 등장)

○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

-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바이어 오피스가 소재("One Source, Multiple User")
- 아시아 최대의 전시 컨벤션 시티, 홍콩(연간 500여 개의 이벤트, 150개의 무역전시회 개최, 세계 최대의 전시회 다수, 전시회장은 세계의 바이어가 몰리는 Hot Spot)

□ CEPA협정(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)

- 2003년 6월, 중국과 홍콩 간의 CEPA(경제협력강화협정) 체결로 일부 홍콩 제품과 서비스업의 중국 진출이 허용되고 무관세 혜택이 제공

* CEPA: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(동일국가내 상이한 행정기구가 상이한 관세지역을 대표하여 서명)

* 선행선시(先行先試, Early and pilot implementation): 홍콩에 인접한 광둥성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가는 방식

- 매년 양측간 CEPA 보충협상이 이뤄지면서 허용 제품 품목 및 서비스 영역이 추가되고 규정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커지고 있음.
- 가장 최근 보충협상은 2012년 6월의 CEPA 9차 협정으로 법률, 회계, 건설, 의료, 관광, 문화 교육 등 총 48개 분야의 시장 개방이 주 내용임 (2013.1.1부터 발효)

- 이중과세 방지협약: 2006년 8월, 홍콩과 중국은 상호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함.

- 2008년 1월 2차 협정을 통해 양국은 기업, 개인의 직간접 소득 모두에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함.
- 이 협약으로 투자자들의 중국본토 투자 시 홍콩을 경유하는 인센티브가 추가되었으며 향후 기술 노하우, 특허권 등의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- 홍콩의 중국진출 위한 교두보로서 입지가 강화되었으며 양국간 전문인력 교류도 활발해짐.

○ CEPA 추진경과

- 2003년 6월 29일 1단계 체결 이후 매년 보충협정 체결

단계	체결일자	발효일자
(협상개시)	(2002. 1)	-
CEPA I	2003. 6	2004. 1
CEPA II	2004. 10	2005. 1
CEPA III	2005. 10	2006. 1
CEPA IV	2006. 6	2007. 1
CEPA V	2007. 6	2008. 1
CEPA VI	2008. 7	2009. 1
CEPA VII	2009. 5	2009. 10
CEPA VIII	2010. 5	2011. 1
CEPA VIV	2011. 12	2010. 4
CEPA X	2010. 6	2013. 1

○ CEPA 주요내용 및 특징

- 상품, 서비스, 무역투자 간소화 등 3가지 사항으로 구성
- 상품교역: 홍콩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대중국 수출품에 대하여 관세 철폐
 - ※ 2004년 1월: 관세 철폐 시작
 - ※ 2006년 1월: 모든 홍콩산 제품 영관세 적용
 - ※ 무관세 적용 품목 수: 1,739개 항목
- 서비스요역: 중국의 기체결 FTA 대비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, 인력 이동수준 보장
 - ※ 2013년 1월 발효될 CEPA X까지 48개 서비스 부문, 총 338개의 서비스 개방 조치가 이루어짐
- 무역투자 간소화: 무역, 투자 촉진, 통관절차 간소화, 검역, 식품 안전, 지적재산권, 금융 및 관광 협력,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, 기술상 무역 장벽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양 지역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유도
- 보충협정을 통한 점진적인 서비스 개방

○ CEPA X(9차보충협정)까지 총 48개 서비스업 분야 338개 개방조치

CEPA I	경영자문, 회의 및 전시, 광고, 회계, 건설 및 부동산, 의료 및 치과, 유통, 물류, 화물 취급 중개업, 저장 및 보관, 운송, 여행, 시청각, 법률, 은행, 증권, 보험 및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등 18개
CEPA II	항공 서비스, 문화 오락, IT, 직업소개업, 직업중개업, 특허중개, 상표중개 및 전문자격시험, 개인 자영업 등 9개 분야 확대 개방
CEPA III	법률, 회계, 시청각, 건설, 유통, 은행, 증권, 여행, 운송 확대 개방, 개인 자영업 10

	개 분야 확대 개방
CEPA IV	법률, 건설, IT, 컨벤션 및 전시, 시청각, 유통, 여행, 항공 운송, 육상 운송 및 개인 자영업 등 확대 개방
CEPA V	28개 서비스 분야: 기존 개방분야 17개, 신개방 분야 11개 (프린팅, 공공설비, 건물청소, 경영자문, 컴퓨터, 노인, 환경, 시장조사, 통번역, 스포츠 등)
CEPA VI	총 17개 서비스 분야: 기존 개방 분야 15개, 신개방 분야 2개 (과학기술자문, 광업) 추가 개방
CEPA VII	총 20개 서비스 분야: 기존 개방 분야 18개, 신개방 분야 2개 (연구개발, 철도 교통) 추가 개방
CEPA VIII	총 14개 서비스 분야: 기존 개방 분야 12개, 신개방 분야 2개 (검사 및 인증 서비스, 전문 설계서비스) 추가 개방
CEPA VIV	총 16개 서비스 분야: 기존 개방 분야 13개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과 신개방 3개 (R&D, 제조업, 레저 엔터테인먼트) 분야 추가 개방
CEPA X	총 22개 서비스 분야: 기존 개방 21개(법률, 회계, 건설, 의료, 관광, 문화 등) 분야에서 37개 조치들이 수정되었으며 신개방(교육) 1개 분야 추가 개방

○ 기체결 FTA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개방수준

- 18개 GATS* 플러스 양허 부문
- 연구개발, 시장조사, 인력배치 및 공급, 포장재 인쇄, 공공설비, 유무선 전화카드 유통, 중국어 영화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, 장애인 복지 및 노인,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, 도시 및 근교 철도 운송, 개인 자영업, 물류, 전문가 및 기술사 자격시험, 상표권 대리업, 특허 대리업, 검사·인증 전문설계 등

* GATS: 서비스무역일반협정(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)

○ 개방폭이 특히 넓은 서비스 분야

- 법률, 의료, 건설, 시청각, 관광 및 여행서비스 등: 보충협정마다 추가적 개방을 허용한 분야

◇ 광둥성 내 선행시험조치 실시

○ 광둥성에 우선 개방조치를 시범실시 후 보충협정에서 중국전역 확대 적용

은행	광둥성 내에 지점 설립한 홍콩은행의 동일지역 내 출장소 설립 허용 (III)
증권	홍콩과 중국 증권사 JV 설립 허용, 업무는 증권투자자문업무에 한정, 홍콩 증권사 합작회사 지분 1/3제한 (VII)
해운	홍콩-광둥간 해운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콩 선반회사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되, 홍콩과 광둥항을 오가는 중국 등록선박을 취급하는 회사에 한함 (VII)
철도운송	선전 지하철 4호선 건설 운영 및 관리 프로젝트에 독자 참여 허용 (VII)
전시컨벤션	홍콩서비스공급자가 주과하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대외경제기술박람회 심사비준권 광둥성 정부로 이양 (VII)
공공설비	광둥성 100만 명 미만도시의 도시가스 네트워크 건설 및 운영 지분 제한 철폐 (VII)

전신	홍콩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/무선 전화카드 소매판매업을 광둥성에서 가능토록 허용 (VII)
법률	홍콩 로펌이 조건을 갖춘 광둥성의 중국측 로펌과 제휴 운영 허용 (VII) *중국로펌 조건: 설립후 만 1년 이상 경과 혹은 1인 이상 설립인이 5년 이상 영업경험 보유
의료	광둥성에 합자병원 설립시 총자본여건 폐지(VIII), 의료합자 설립 시 승인권한 광둥성 정부로 이양 (VIII), 독자/합자 요양병원 설립 허용 (VIII)
건축전문가	건축사 1급, 구조공학사 1급 상호인정, 광둥성 개업허용 (VIII)

○ CEPA의 경제적 효과

상품 무역	CEPA를 통해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수출되는 무관세 상품 비중이 2004년 3%에서 2010년 22.9%로 증가
서비스 무역	홍콩 서비스 공급자 중국 내 사업수입 누계: 2007~2009년간 HK\$ 1,985억 (US\$ 256억) 동 기간 홍콩 내 사업수입 누계: HK\$ 551억 (US\$ 71억) 주로 유통, 화물, 광고, 물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한 것으로 분석(CEPA로 인해 창출된 사업 수입의 98%, 고용인력 90%이상 차지)
사업 수입	CEPA 활용, 중국 관련 사업을 운영중인 기업들의 홍콩내 사업 수입 누계: 2004~2009년 간 HK\$ 616억 (약 US\$ 79억)
개인방문 프로그램 (IVS)	IVS 하 홍콩 입국 중국인 관광객 수: 2010년 3월까지 4,900만명, 2004년 426만명에서 2009년 1,059만명으로 증가 2009년 실시한 선전 영주민 홍콩 '복수입국' 개인관광제도로 관광객 전년 대비 40% 상승 중국인 홍콩 관광객의 지출: 2004~2009년 간 HK\$ 848억(US\$ 34억) 선전 관광객 소비액: HK\$ 264억
고용 창출 효과	2009년말 기준 홍콩에 54,700개, 중국에 40,600개 일자리 창출
투자 유치 효과	홍콩에 투자한 265개 기업 중 26%에 달하는 70개 기업이 홍콩에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CEPA가 주요 고려요소였다고 응답(2009년 기준) 홍콩에 대한 중국 기업의 FDI 승인건수: 2005년 11월~2009년 12월 간 2,602건

자료원: 홍콩무역산업부

◇ CEFA 활용 유망분야 및 요건

○ 중국은 고관세, 인허가, 외자제한 등 높은 시장진입 장벽으로 인해 해외기업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

- 중-홍콩 CEPA는 효율적인 중국 본토 시장진출 Tool로 활용 가능
- 우리기업의 CEPA 원산지 규정 충족을 통한 무관세 수출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
-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CEP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

나. 심천 및 동관 한인상회 방문결과 요약

1) 가격경쟁력

- 한·중 가격경쟁력을 비교해 보면, 산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.
 - 섬유, 휴대폰 등 저부가가치제품 및 조립소비제품 등은 현재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, 반도체, 철강, 석유화학 등 중요 부품·소재, 조선, 자동차 등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는 현재 한국이 가격경쟁력 우위를 유지
- 향후 2015년에는 자동차, 반도체, 철강 등의 경우 한국이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할 것인 반면,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중국이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이거나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
- 가공무역 또는 제3국 수출을 주로하는 광둥성 심천과 동관 현지 조사결과, 전자산업에서 한국계 기업의 제조비용은 한국 대비 60~70% 정도 저렴하며, 현지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20~30%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조사
 - 동관지역의 한국기업들은 제조원가 면에서 중국 현지기업이 한국기업보다 50% 정도 저렴할 때 손익분기점이라고 인식

2) 품질경쟁력

- 중국의 품질수준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90%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 - 중국이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디스플레이, 휴대폰 등은 우리에게 비해 품질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.
 - 섬유, 석유화학, 철강 등 소재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품질경쟁력이 한·중 간 큰 차이가 없다.
 - 2015년에 한·중 간 품질경쟁력의 격차가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한국이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
- 중국 광둥성 지역 현지 실사 결과 전자제품의 경우 한국과 중국 제품간 품질

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현지 한국 기업인들은 인식

- 중국 로컬 기업들은 아직까지 품질 관리에 미숙하다고 인식

3) 기술경쟁력

○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수준도 한국의 90%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중국이 가격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, 디스플레이, 휴대폰 등의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의 70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.

- 기술경쟁력도 소재산업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데,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력은 한국의 90%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2015년에 중국의 철강, 석유화학의 경쟁력이 한국의 95% 이상까지 접근하지만,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60~70%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

○ 동관, 심천 지역의 한국계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현지 기업간 기술격차는 10년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

- 아직까지 대부분 중국계 로컬기업들은 모방단계에 있지 브랜드 개발단계에는 못미친다고 인식

- 현지 중국인들의 한국 가전제품과 디지털 제품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특히 소형차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좋다고 응답

다. 기타 특이 사항

◇ 동관 寮步鎮 鎮長 劉裕昌 면담 결과

○ 동관시 교역규모는 1-10월 1,360억달러, 그중 수출 760억달러를 기록하여 유럽 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피부로는 심각한 불경기를 체험(요보진 유진장)

- 요보진의 수출 규모는 100억달러이며, 요보진 관내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상당 수 존재

○ 요보진은 면적 70 평방미터, 인구 40만명, 그중 호적인구는 7만명임.

- 동관시 인구(실 거주인구)가 2007년에 1,200만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,000만명으로 200만명이 감소, 동관 경기 둔화와 상당수 농민공들이 내륙의 고향 근처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

○ 요보진정부 공무원은 40명, 비정규직이 160명

- 요보진 진정부 건물이 아주 큰 편으로 한국의 구청 규모에 해당, 전용 귀빈 식당도 있음.
- 진정부의 연간 세입이 30억위안이며, 이중 25억위안은 상급 기관에 납부하고, 5억위안은 자체적으로 사용
- 기타 진정부 소유(집체경제)의 건물과 땅(공업단지)을 임대하여 4억위안의 소득을 창출하여 진정부 경비로 활용
- 진장의 직급은 원래 중앙정부의 사무관급이었으나 요보진과 같이 규모가 클 경우에는 과장급으로 상향 조정
- 현지에서는 진장의 권력이 대단하였고, 특히 동 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존재

□ 한국학교 문제

○ 현지 교포 또는 주재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학교 설립문제

- 심천과 동관 모두 한국상회 사무실과 한국학교(주말학교)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, 한국학교 교장을 한국상회 회장이 겸직하는 형태
- 전문직 교사(교사 자격증 보유)가 없어 대개 주재원들의 부인이 가르치는 형태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
- 주재원 또는 기업인들 자체들은 대부분 광조우에 유학시키고 있으며 교육비 부담이 큰 편

□ 한국상회의 법적 위상 문제

○ 심천과 동관이 대조적인 관계

- 심천한국상회는 사무국장 1인과 현지직원 3명이 근무
- 심천한국상회는 비법인의 임의 기관인 관계로 현지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, 양

로보험 등을 미지급

- 심천한국상회가 유치한 유학생창업빌딩은 20여층 이상의 대형빌딩이나 실제 유학생 창업은 거의 전무인 실정
 - 3층까지 심천한국상회와 같이 외국인 임의단체들이 거주(36개국)
 - 심천시정부는 이들 단체(불법)를 한편으로 통제하면서, 한편으로는 임대료를 인근 지역의 1/4 정도로 제공(월 25위안/평방미터당), 인근 역세권 110-120위안/평방미터, 월)
 - 중국은 전국 단위의 조직을 불허, 1개만 법인단체로 허용, 따라서 북경에 소재한 한국상회는 법인단체, 기타 지역의 58개 한국상회 지회는 비법인단체로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음. 따라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음.
- 동관의 경우에는 동관시 외사국이 외상투자기업협회를 법인단체로 설립하고 그 산하로 한국기업들이 “한상투자기업분회”에 가입, 따라서 동관한인상회는 법인단체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정규직이 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도 가능
- 대신 동관시정부가 단체를 직접 통제 가능, 현재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